

오늘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회심기념 2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구용산지방 웨슬리회심기념 집회가 22-25일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립니다. 집회는 저녁 7시입니다. (22일은 오후 3:30)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사람책 행사가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오후 1: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지난 교회설립기념주일에 있었던 초록장터 수익금과 초록가게 수익금 3백만원을 '소망을 찾는 이'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정선희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자신의 폭력성을 자각하고 이를 줄여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벧후 3:11-18
------------

오늘 식당 봉사 : 박성실 윤영미 김향자 손미자 허명선 김영호 장동훈 허호범  
 다음 주 식당봉사 : 권미숙 조정자 최옥자 최미자 유금주 이경아 박구병 정현모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40세 이하)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61-65세)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떡 대 접 : 김경혜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웨슬리회심기념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혐오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릇된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감리교회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십시오. 개인이 구원받음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지역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감리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뜻대 삼아 살아가는 감리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2:5,6 ..... 인도자

♣ 교 독 문 ..... 72. 이사야 58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286.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 함께

♣ 성경봉독 ..... 롬 1:16-17 ..... I.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II. 이현순 집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날 위하여 십자가의 ..... 찬양대

말 씬 ..... 무엇으로 사는가?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금분	강신철	이혜경	권미숙	김기성	이은정	김남종	오복순	김대영	이효심
김애경	김애순	김용진	박호선	김재환	김진선	김정수	정자현	김대영	이효심
김중현	성귀옥	김필수	김현동	오유경	김희진	박홍재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박영희	박예림	박정윤	김백성	백의경	변재민	이소혜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박재란	원용일	최현선	윤미경	윤수진	윤순우	윤정덕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김민화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주영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정은선	장혜정	정연경	조병무	송양진	조지연	최속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성식	이유리	홍순구	안홍숙	남명진	김대영	이효심

### 감사헌금

권수인	김경혜	김극	김영호	김정린	김정민	이혜령	김지현	김해선	문금석
박재영	이현정	윤석철	장혜숙	이범석	류정욱	이부거	이부용	이지하	장미경
전영린	정의로	정지혜	최미선	홍윤선	무명15				

### 녹색꿈헌금

김영희	김용길	최영혜	우순덕	이미정	이정우	장윤지	임선양	신현숙	임승동
백혜숙	최경미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권민준 권용민 윤미경 조윤경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네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 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이면  
나는 너에게로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쭉불쭉 다가왔다가  
이내 허공중에 흩어지는 너,  
네가 그리우면 나는 또 울 것이다

- 고정희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2부찬양	양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사십시오. 오직 그 믿음에 잇대어 살아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그릇된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길을 우리의 길로 삼고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질없고 잘못된 것들을 다 비우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우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예배위원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재홍 목사	강세기 집사

5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박유경
	1부 헌금위원	오미숙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김종락 최재욱 정현숙 박영신 이수정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김인걸 박미영

믿음으로 읽는 글

## 웨슬리의 부의 개념과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

... 감리회를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웨슬리가 부의 위험성에 대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 데 있다. 웨슬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히 1780년대 동안 부의 위험에 대해 강조하였다.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웨슬리는 “세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와 “부를 축적하는 것의 위험”이란 제목의 설교를 작성하였다. “세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에서는 웨슬리는 하나님 외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덧없는 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없어질 것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둡니다. 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웨슬리는 요약적이고도 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나의 모든 재물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것의 위험”이 주는 가장 탁월한 가르침은 “병자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라는 설교에서 이미 전개한 웨슬리의 독특한 목회 유형이다. “부를 축적하는 것의 위험”의 내용은 웨슬리가 앞서 표현했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종들이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섬김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재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부의 축적은 그리스도인의 정직에 빛나가는 것이었고 충분히 나쁜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를 데리고 있으면서 노예를 사고파는 일로 이웃을 담보로 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명백히 양심을 버린 일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의 침해로서 결코 관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일

로 인해 웨슬리는 죽기 직전 당시 의회의 의원이었던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써서 윌버포스로 하여금 그의 개혁적인 노예 폐지 운동을 지속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지지해 달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 아래 악 중에서 가장 사악한) 미국의 노예까지도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귀하의 운동을 계속해 주시오.” 몇 년 전, 웨슬리는 1787년 노예제도의 철폐를 위해 신도회를 만들었던 그랜빌 샤프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 편지에서 “내가 소식을 들은 이후... 나는 끔찍한 노예 무역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주제를 갖고 귀하께서 쓴 글을 읽고 난 후 더욱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다. 더 나아가 1787년 11월에 한 달이 지난 후 웨슬리는 토마스 펜넬에게 비슷한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혐오스런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관대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이라도 줄 것입니다. 나는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들」을 큰 활자로 인쇄하였습니다.” 웨슬리의 눈에는 노예제도를 계속 견지하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노예제도에 대한 이런 웨슬리의 생각은 정치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도덕법에 주목한 그의 신학적 표현이었다. 그는 실제로 도덕법이 “하나님 마음의 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적절한 관계”를 표현한 도덕법은 웨슬리가 불의한 법과 정치적 압력의 밀고 당기는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자유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신을 갖고 호소하게 했던 “객관적” 표준이었다. 그러므로 치밀한 신학적 논증으로 정리된 웨슬리의 삶과 증언을 윌버포스와 새프츠버리 등이 영국의 “혐오스런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데 큰 격려가 되었다.